



**오홍근 전북대 동문인, 장학금 2000만원 기부**

전북대학교 동문인 와우동물메디칼센터 오홍근 원장이 대학 발전을 위해 2천만 원을 기부했다고 전했다. 이에 전북대 발전지원재단은 지난 24일 대학본부 총장실에서 양 총장과 대학 주요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발전기금 기증식을 갖고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에 앞서 오 원장은 수의학 분야 우수연구자 육성과 대학원 발전을 위해 써달라며 5천만 원을 발전기금으로 출연한 바 있다. 이 기금은 기부자의 뜻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에도 수의대 대학원 진학을 희망하고, 우리 지역에 남을 의사가 있는 학생들을 추천받아 장학금으로 쓰일 예정이다. 오 원장은 "대학과 지역의 미래는 우리 학생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기부의 목표는 이윤창출이 아니라 이윤을 결국 사회에 나누는 일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지역에 남을 인재 육성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투자라 생각하며, 인재 육성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남원 금지면, 인생사진관 운영**

남원시 금지면(면장 안민엽)이 봄꽃을 주제로 '봄꽃보다 아름다운 당신 인생사진관'이라는 이색적인 사업을 추진하며 주민들로부터 호평받고 있다. 이 사업은 금지면에 거주하는 90세 이상 어르신(20명 선정)가정에 방문하여 즐거운 담소를 나누는 것으로, 각 마을봉사와 동행해 말벗 정서지원 서비스까지 연계하고 있다. 또한 수시로 안부 확인할 수 있는 마을 내 인적 안전망을 확보하는 한편, 다가올 어버이날에는 어르신들에게 봄 향기 가득 밝은 미소를 담은 액자를 제작 후 전달해 드릴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소방서, 하트세이버 인증서 수여**

남원소방서(서장 소재실)가 25일,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로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킨 대원들에게 하트세이버 인증서를 수여했다. 하트세이버는 '생명을 소생시킨 사람'이란 뜻으로, 심정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등을 통해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운 소방공무원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수여하는 상이며, 소방공무원 5명, 일반인 2명이 인증서를 수여받았다. 한편 소재실 서장은 급박한 현장에서 침착하게 대응하며 소중한 생명을 지켜낸 대원들과 시민께 깊은 감사를 전하며, "이번 수상을 받은 삼아 앞으로는 시민들의 안전과 귀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정읍경찰청, 청소년 마약류 범죄 예방교육 실시**

정읍경찰청(서장 황동석)은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등 마약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마약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청 필로폰 등 국내에서 유통되는 주요 마약과 마약의 유해성과 중독성 등 부작용 그 폐해의 심각성에 대해 교육해 학생들에게 마약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켰으며, 최근 마약 범죄 사례를 소개하며 마약 범죄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유사한 피해 발생 시 즉시 112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마약 범죄 예방법으로는 △호기심으로 마약 관련 검색하지 않기 △SNS 등을 통해 모르는 약물을 구매하거나, 권하지 않기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한 마약연락처에 가담하지 않기 등이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총장이 쓴다... 중간고사 열심히 임하세요”**

**양오봉 전북대 총장, 중간시험 도서관 간식 나누며 학생 격려**

지난 24일 전북대 중앙도서관 앞 잔디광장 앞에 커피차 2대가 등장했다. 중간고사 기간을 맞은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양오봉 총장이 손수 간식 나눔 행사를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양 총장은 취임 일성으로 "학생들이 꼭 다니고 싶은 대학으로 만들겠다"며 밀착형 복지를 추진 1천만 원을 기부하면서 이번 중간고사 간식나눔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저녁 양 총장은 직접 커피차에 올라 시험 준비로 분주한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샌드위치와 커피 등을 제공하며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학생들에게 제공된 간식과 커피는 전주캠퍼스에 1,500명 분, 익산 특성화캠퍼스 200명 분이다. 이날 간식을 받은 오윤상 학생(식품공학과 3년)은 "시험기간이라 몸도 마음도 지쳐있는데, 이렇게 기분 좋은 자리가 마련돼 더욱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천원의 아침밥이나 삼겹살케이, 호프데이를 마련하는 등 학생들과 좀 더 가깝게 소통하려"



는 총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소감을 전했다. 양오봉 총장은 "전북대를 세계 인재들이 모이는 글로벌 허브, 글로벌 Top100 대학으로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학생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소통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늘려 학생들이 가장 만족하는 대학의 위상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은행, 김제사랑장학재단에 장학금 전달**

김제사랑장학재단(이사장 정성주)은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이 지역 인재 양성과 학생들의 학업 전진을 위해 장학금 1억 1천만 원을 기탁했다고 25일 밝혔다. 전북은행은 이날 시장실에서 열린 장학금 기탁식에서 지역 인재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힘써달라며 김제사랑장학재단에 장학금을 전달했다. 기탁식에는 김제사랑장학재단 이사장인 정성주 시장을 비롯해 전북은행 김영진 부행장, 강장오 지점장 등이 참석하였다. 이번 기탁금은 지난해 김제사랑장학재단과 전북은행 김제시지부가 체결한 금고 협약에 따라 장학재단 기금을 운용 관리하게 되어 협약기간 동안 매년 1억 1천만원의 협력사업비를 후원하게 되었다. 전북은행 김제시지부는 2011년부터 올해까지 장학금을 꾸준히 기부해 총 2억 8천만 원을 기탁했다. 김영진 부행장은 "김제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차세대 주역의 육성을 위해 유용하게 써주시길 바라며, 지역 대표 은행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김제사랑장학재단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제=곽태 기자



김제사랑장학재단 정성주 이사장은 "지역 인재들이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해마다 장학금 조성에 참여해 준 전북은행에 감사하며, 기탁해주신 장학금을 받은 삼아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는 다짐을 역할을 할 수 있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태 기자

**건강보험공단 진안지사, 고향사랑기부 동참**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안지사(지사장 김명철)는 25일 진안군 고향사랑기부금 1백만원을 모금해 진안군에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안지사 직원이 자발적으로 진안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고향사랑 기부'의 날로 운영됐다. 진안군이 고향이 아닌 직원들도 다수 있지만 진안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쌓인 진안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표현하고자 기꺼이 기부에 동참했다며 소감을 전했다. 2022년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안지사로 부임하여 진안군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김명철 지사장은 "진안에 몸 담고 있는 일원으로서 진안군과 함께 상생발전해 나가고자 모금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기부가 진안군민들과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진준성 진안군수는 "진안군 발전을 위해 기부금을 전달해 주신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안지사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라고 말했다. /진안=우태민 기자



**농협 정읍지부, 지역아동센터에 NH초록세상 조성**

NH농협은행 정읍시지부(지부장 이재연)가 지난 24일 신대인꿈나무교실 지역아동센터(센터장 강선자)를 찾아 NH초록세상' 전달식을 가졌다. NH초록세상은 미세먼지 없는 친환경 교육공간을 제공하고자 마련된 ESG 사회공헌활동으로 신대인지역아동센터에 천연 이끼식물인 스칸디아모스와 자작나무로 만든 식물벽을 조성하였다. 농협은행 전북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NH초록세상은 기존에 노후화된 벽을 가습 및 제습효과가 뛰어난 친환경 아트월로 탈바꿈하여 실내습도조절, 인테리어 개선 및 아동들의 정서적 안정감 제고에 큰 효과를 나타내며 아동센터와 청소년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신대인꿈나무교실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는 "최근 실내 활동이 많아짐에 따라 보다 쾌적한 실내 공간 조성이 필요했다"고 전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사드린다"면서 "보내주시 관심과 사랑에 보답해드릴 수 있도록 발전해나가는 진안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고 의지를 밝혔다. /진안=우태민 기자



**완산소방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전주완산소방서(서장 김장수)는 25일 재난 시 신속하고 안전한 현장도착과 소방차 출동로 확보를 위해 남부시장, 임실시장 등 상습정체 구간을 대상으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매일 실시하고 있는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은 각종 재난 발생 시 긴급차량의 현장 출동 및 소방 활동 확보와 시민들의 소방차 양보 의식을 함양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소방 차량 11대와 소방공무원 30여 명이 동원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방차 길터주기 합동 출동 훈련 △소방 출동로 확보 플래카드 차량 부착 △상습 정체 구간 소방차 진입 및 통행 훈련 △전통시장 소방차 진입 훈련 △소방차 길터주기 안내 홍보 등이다. /임중은 기자

**방 명예 우석대 교수, 특수교육원 공모과제 선정**



우석대학교 방명예(특수교육과) 교수가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의 공모과제에 선정됨에 따라 '특수교육 국정 보건과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편찬 개발 연구'에 나선다. 이에 따르면 방명예 교수는 2024년 11월까지 8억9300만 원을 지원받아 중·고등학교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국정 교과서와 지도서, 전자 저작물 등을 개발할 예정이다. 특수교육 국정 교과용 도서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을 위해 장애 특성 및 교육적 요구 등을 고려한 맞춤형 기본교육 과정을 서책과 전자 저작물로 구현하는 것이다. 방명예 교수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자신의 건강과 안전의 주체로서 건강한 생활 습관, 건강한 선택, 성적 자기결정 및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역량을 향상하기 위한 교과용 도서를 개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방명예 교수는 2011년 개정, 2015년 개정, 2022년 개정 특수교육 기본 교육과정·중·고등학교 교육과정, 특수교육 국정 초등 과학 교과용 도서, 중·고등학교 보건 교과용 도서 등을 개발한 바 있다. /정은성 기자

무주군은 전라북도재향군인회 여성회 명예회장 박찬숙 씨가 고향사랑기부금으로 300만 원을 기탁했다고 25일 밝혔다. 무주군 안성면이 고향인 박찬숙 씨는 "고향 무주는 항상 제 마음속에 영원한 안식처로 자리 잡고 있다"라며 "이번 기부를 통해 고향발전을 돕고 무주를 응원하는 마음을 전할 수 있어서 뜻깊다"고 말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향우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기부가 무주발전에 큰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자연특별시로서 아름다운 천혜의 자연을 잘 보존하고, 살기 좋은 무주로 인프를 갖춰 '언제나 찾고 싶은 고향무주'로 보답하겠다"고 화답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박찬숙전 여성회장,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무주군은 25일 순창군 장애인체육관에서 '차별은 없이 기회는 같이, 행복은 높이!'라는 슬로건으로 '제43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은 정화영 순창군수와 신정아 순창군의회 의장, 군의원, 지역장애인, 자원봉사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장애인 인식 개선과 복지 증진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장애인 인권현장 남북을 시작으로 장애인복지증진과 인식개선을 위하여 노력해 온 모범 장애인과 유공자 15명에 대한 표창장 수여와 기념사, 추사 순으로 1부와 2부로 진행되었다. /순창=이왕일 기자



**순창군, 제43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성료**

순창군은 25일 순창군 장애인체육관에서 '차별은 없이 기회는 같이, 행복은 높이!'라는 슬로건으로 '제43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은 정화영 순창군수와 신정아 순창군의회 의장, 군의원, 지역장애인, 자원봉사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장애인 인식 개선과 복지 증진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장애인 인권현장 남북을 시작으로 장애인복지증진과 인식개선을 위하여 노력해 온 모범 장애인과 유공자 15명에 대한 표창장 수여와 기념사, 추사 순으로 1부와 2부로 진행되었다. /순창=이왕일 기자



**남원시 보건소, 어린이 감염병 예방교육**

남원시 보건소는 이달 24일부터 5월까지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원아를 대상으로 어린이 감염병 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놀이터, 공원 등 야외활동이 잦고 감염병 발생 시 전파속도가 높은 보육시설 어린이를 대상으로 올바른 개인위생 습관 형성 및 감염병 사전 예방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교육은 16개 기관 600여 명의 원아를 선정해 보건소 및 남원의료원 감염병센터 담당자가 신청 기관을 방문해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교육 및 올바른 손씻기 교육 및 실습을 진행한다. /남원=김기두 기자